

수 없었다. 그 말은 성긴 듯하지만 실은 치밀하고, 순서는 어지러운 듯하지만 실은 정연하며, 말하지 않은 것이 깊게 말한 것이다. 갑자기 옮기고 바꾸고 털어내고 보태어서 前人이 傳受한 뜻을 잃는 것은 옮지 않을 듯하다.”<sup>22)</sup>고 하여, 『古本大學』의 치밀한 논리와 정연한 순서에 확고한 자신감을 밝힘으로써 『대학』의 편차를 고쳤던 程子·朱子의 견해에 대해 거부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대학』의 해석에서 古本을 내세운 사실과 더불어 제2-4절의 傳에서도 ‘誠意’를 제2절로 내세워 표방함으로써 格物·致知를 역설하는 朱子의 입장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실에서 王陽明의 견해와 접근하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견해가 양명학에 접근한다는 의문에 스스로 대답하면서, 誠意·正心에 앞서 格物·致知해야 한다는 사실은 經文에 언급된 것임을 전제로 확인하면서도, 朱子가 ‘格物’의 ‘格’을 ‘이른다’(至)는 뜻으로 해석하고 ‘物’을 ‘일’(事)이라 해석하는 것과 달리, ‘格’을 ‘감응하여 소통한다’(感通)는 뜻으로, ‘物’을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곧 그는 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가 모두 格物·致知하는 일이라 파악함으로써, 格物·致知와 誠·正·修·齊·治·平을 다른 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知와 行을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緩·急의 순서를 잃게 되어, 天·性이나 高遠하게 담론하다가 아무 소득이 없는 폐단에 빠지게 될 것이라 경계하고 있다.<sup>23)</sup> 여기서 그는 朱子의 格致說이 主知的인데 치우쳐 知·行이 乖離된다는 陽明學의 비판적 태도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더불어 그는 ‘格致’에 대한 傳文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程子是 ‘옛 사람이 남겨두고論하지 않은 것’(古人存而不論)이라 여겨, 본래 格致傳이 없었던 것을 인정하였던 것이라 하고, 이에비해 朱子는 ‘본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本有而今亡)이라 여겨, 『대학장구』의 傳5章에서 格致傳을 보충하여 格物致知補亡章을 만들었던 사실을 대비시키고 있다.<sup>24)</sup> 여기서 그는 程子和 朱子의 견해가 다르지만 노력하는 방법에서는 같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는 朱子의 補亡章이 없이도 『고본대학』이 완결된 것임을 인정하고, 더구나 格致에 관해 말하지 않은 가운데 드러나는 참된 뜻을 알도록 요구함으로써 주자의 견해와 중요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는 格物의 방법을 두가지로 제시하여, ‘흠어진 마음을 거두어들여 붙잡아 간직하며, 엄숙하고 고요하고 한결같이 하여, 마음의 本原을 밝고 넓게 하여 사물이 다가오면 지각이 알게 하는 것’(欲收放操存, 齊莊靜一, 而使本原昭曠, 而物來知知)과, ‘자세히 묻고 깊이 생각하여 극진하게 하며, 정미한 이치를 연구하여 참됨을 쌓아 오래도록 힘써서 神妙한 感化에 들어가게 하는 것’(欲審問精思, 研幾極深, 使真積力久, 而入於神化)

22) 『白湖全書』(下, 1524), 권37, ‘讀書記(大學)·大學全篇大旨按說’, “其反復抑揚之際, 焯有微意弘旨, 而不可泯沒焉, 其言似疎而實密, 其序似亂而實整, 其所不言者, 乃所以深言之也, 恐不可遽有所移易損益, 以失前人傳受之意也.”

23) 『白湖全書』(下, 1520-21), 권37, ‘讀書記(大學)·大學全篇大旨按說’.

24) 『白湖全書』(下, 1506), 권37, ‘讀書記(大學)·大學古本別錄’.

이라 한다.<sup>25)</sup> 그는 格物의 이 두가지 방법을 物理가 感通하는 방법이라 하고 窮理·明善의 방법이라 하는데, 그것이 窮理와 涵養(居敬)의 양면을 포함하는 것이요, 尊德性·道問學을 동시에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格物을 主知的으로 파악하는 朱子學의 格物說과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차별화하고 있다.

그 밖의 구체적 문제에서도 白湖는 朱子의 『대학』해석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그는 ‘大學’을 學宮(학교)의 명칭이요, 동시에 ‘小學’이 어린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행동하는 절도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大學’은 君臣의 의리와 朝廷의 예법과 百姓에 임하는 도리 및 爲政의 체제 등 大本·大原·大經·大禮으로서 天下와 國家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학문의 大·小를 구별한 것이지 사람의 大·小(大人·小人)을 구별한 것이라 아니라 한다. 그것은 주자가 ‘大學’을 ‘大人之學’이라 해석한데 대한 異見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程子·朱子가 『대학』의 ‘親民’을 ‘新民’으로 고친데 대해서는 그대로 受容하고 있으며, 자신의 견해를 朱子의 여러 언급으로 뒷받침하고자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그의 이중적 입장이 강력한 道學정통론의 견제와 비판 속에 이루어진 그의 修辭法이라면, 그의 핵심적 입장은 朱子에 구속되지 않고 經傳으로 돌아가서 經學의 재구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 5. 孝經·內則의 事親學

### 1) 孝經과 孝經外傳

白湖는 『孝經』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여, 30대 후반에 『讀書記』의 「중용」편과 「대학」편을 저술하자, 바로 이어서 「孝經」편을 짓고 이를 부연하여 「孝經外傳」·「孝經外傳續」편을 편집하고 주석하였다. 그는 宋代에 衡山 胡氏와 玉山 汪氏가 經文 속에 孔氏의 舊文이 아닌 것이 있다고 의심하고, 朱子가 經·傳으로 章句를 나누면서 經1章이외의 傳은 後儒가 고쳐넣은(竄入) 것이라 하였지만, 그는 『孝經』에 後人들이 망녕되게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효경』이 孔子의 門下에서 나온 것으로 ‘聖人の 大訓’이요 六經과 並稱되는 것임을 역설한다. 곧 그는 『효경』의 저작에 대해 曾子의 글이 아니라는 견해를 거부하고, 孔子와 曾子의 문답한 말씀을 曾子의 門人이 기록한 것이라 확인하며, 공자가 높이는 堯·舜의 道란 ‘孝弟’일 뿐이라 하여, 『효경』이 孔子문하의 중심문제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曾子문하의 기록으로서 『대학』과 『효경』이 같은 범도에서 나온 것이라 하여, 양자의 긴밀한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곧 『대학』이 ‘마음에 근본하여 천하에 시행하는 것’(本諸心而措之天下)이요, 『효경』은 ‘孝에 근거하여四海에 펼치는 것’(因乎孝而放諸四海)이라 한다.<sup>26)</sup> 이처럼 그가 『대학』과 『효경』이 주제에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구조의 작품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효경』을 기본경전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립하

25) 『白湖全書』(下, 1517), 권37, ‘讀書記(大學)·大學全篇大旨按說’.

26) 『白湖全書』(下, 1550-51), 권38, ‘讀書記(孝經)·孝經章句古今文考異’.

고자 하는 그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효경』에 今文과 古文의 二本이 있어서 錯亂이 있음을 인정하며 朱子가 『孝經刊誤』를 저술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章句로 분석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자신은 古文을 기준으로 삼고 今文으로 보충하며 朱子의 『孝經刊誤』를 대비시켜 검토하여 『孝經章句考異』를 저술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효경』을 15章으로 나누고 제1장은 經이요 제2-15장은 傳이라 본다. 그것은 今文이 18章으로 古文이 22章으로 나누고 朱子가 經1章과 傳14章의 15章으로 나눈 分章과 篇次에서, 篇次의 순서는 古文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만, 分章은 朱子의 15章체제를 따른 것이다.<sup>27)</sup>

白湖：『孝經章句考異』	今文孝經	古文孝經	朱子：『孝經刊誤』
제 1 장：通言孝之道-兼終始通上下	1- 6	1- 7장	經 1 章
제 2 장：孝之本乎天	7장	8장	傳首章
제 3 장：孝之順乎人	8장	9장	傳 3 章
제 4 장：孝之爲大德	9장	10장	傳 4 章
제 5 장：孝之爲本教	9장	11장	傳 5 章
제 6 장：孝之事	10장	12장	傳 6 章
제 7 장：非孝之罪	11장	13장	傳 7 章
제 8 장：本諸心以順天下	12장	14장	傳 9 章
제 9 장：先乎身而帥天下	13장	15장	傳 2 章
제10장：成乎家以及天下	14장	16장	傳首章
제11장：闈門之內-和爲主·嚴爲貴	無	17장	傳11章
제12장：父子之間-順爲正·諫爲大	15장	18-20장	傳12章
제13장：極乎事天之義	16장	20장	傳13章
제14장：推之事君之道	17장	21장	傳 9 章
제15장：慎終追遠之義-事親之道終	18장	22장	傳14章

여기서 그는 朱子가 經文의 上下 순서를 옮기고 바꾸는 것은 옛 편차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또한 옛 『효경』의 편차순서에 정밀한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여, 주자가 순서를 바꾼 것을 따르지 않고 있다.<sup>28)</sup> 여기서도 그는 경전의 순서를 일관된 체계로 재구성하는 朱子의 章句체제와 달리, 古經에 입각하여 그 경전정신의 본래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白湖經學의 기본특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白湖는 천하의 5達道가 ‘五常’이요, 五常의 중대한 것이 ‘三綱’이며, 三綱의 근본이 ‘孝’의

27) 『白湖全書』(下, 1538-39), 권38, ‘讀書記(孝經)·孝經章句考異目錄’.

28) 같은 곳, “刊誤作十五章, 經傳者爲可據, 然經文之移易上下, 亦非復舊編, 而舊經編序, 自不無精義, 今故因古文次序, 而用刊誤分章之例.”

德이라 하여, 孝의 德이 지닌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효경』이 孔子의 말씀에서 나온 경전임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漢代에 『효경』이 중시되면서, 『춘추』가 공자의 뜻(志)을 담고 『효경』이 공자의 行을 실은 것으로 두 경전이 表裏관계에 있는 것이라 보는 견해를 주목하였다.<sup>29)</sup> 『효경』은 공자의 志와 行이라는 두 軸의 하나를 이룰 만큼 공자의 가르침에서 핵심적 과제를 담고 있는 경전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효경』의 정신을 부연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五倫·三綱·孝에 관한 글을 여러 경전과 고전에서 수집하고 주석하여 「孝經外傳」편과 「孝經外傳續」편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白湖의 「孝經外傳」편은 ①「禮記, 哀公問」, ②「西銘」(張橫渠), ③「家語, 哀公問政」(『孔子家語』), ④「孟子, 許行辨」(『맹자』, 「滕文公上」), ⑤「大傳」(『禮記』), ⑥「小記略」(『禮記』, 「親服小記」), ⑦「魯論, 堯曰」, ⑧「爾雅, 親屬記」, ⑨「管氏弟子職」(『管子』), ⑩「名器篇」(『禮記』, 「曲禮下」·「玉藻下」·「檀弓下」·「玉制」편, 및 「周禮」, 「春官宗伯」)의 1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孝經外傳續」편은 ①「皐陶謨」(『書經』)·②「萬章問」(『맹자』)·③「微子」(『논어』)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것은 『禮記』를 비롯한 여러 경전과 고전에서 인용하여 편집한 것이다.

특히 그는 「孝經外傳」에서 聖賢의 五倫·三綱·孝에 관한 가르침을 모았다면, 「孝經外傳續」에서는 堯·舜·禹·湯·周公·孔子·曾子·孟子 등 聖賢의 사업과 행적을 통해 그 가르침의 실재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그는 「孝經」의 재해석과 그 外傳의 편찬을 통해 ‘孝’를 근본규범으로 삼아 事天·事親하며 나아가 修己·治人하여, 天下와 國家를 教化하는데 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유교의 핵심정신과 전체규모를 정립하고자 도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內則과 內則外記

白湖는 『효경』의 事親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禮記』의 제12편인 「內則」편을 끌어내고 있으며, 「內則」편을 三代시기의 교육방법을 담은 古經으로서 『효경』과 『대학』의 경우처럼 孔子가 曾子에게 전해준 것이라 본다. 여기서 그는 聖人の 道가 ‘孝弟’를 근본으로 삼고 ‘夫婦’에서 발단하여, 집안과 나라에 통달하고 나아가 천하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비근한 人倫의 日常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聖人の 道가 經傳으로 구체화된 사실로서 曾子가 남긴 글 가운데 『효경』은 그 강령을 제시한 것이고, 『대학』은 마음에 근본함을 밝힌 것이며, 「內則」은 특히 그 구체적 일에 상세하고 행위에 드러내어 꼭진하게 이루는 것으로서 더욱 배우는 자에게 절실한 것이니 서로 없을 수 없는 것이라 역설하고 있다.<sup>30)</sup> 또한 「內則」은 經文이 간결하고 심오하며 정밀하고 집약되어 있어서 『儀禮』(17편)와 서로 表裏를 이루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內則」편이 독립

29) 『白湖全書』(下, 1553), 권39, 「讀書記(孝經外傳)·序」, “炎漢之興, 特重是經, 謂是書之作, 與春秋爲表裏也, 曰夫子志在春秋, 行在孝經.”

30) 『白湖全書』(下, 1801), 권46, 「讀書記(內則)·集釋序」, “曾氏之書, 孝經舉其綱, 大學本諸心, 而此篇者, 則又特詳其事, 見諸行, 而曲致之, 尤有切於學者而有不可相無者.”

된 경전으로서 중대한 비중을 지니는 것으로 강조함으로써, 『효경』·『대학』과 병행하는 독립된 경전으로 표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는 「內則」의 내용은 간단하고 쉬우며 명백하여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 순서에 따라 구체적 실천절목의 내용을 분석한다. 첫머리는 王子가 표준을 세우고 教化를 펴는 뜻을 밝힌 것으로서, 本原에 관한 가르침이라 한다. 다음 단계로는 ①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기는 道, ②젊은 이가 어른을 섬기고 천한 이가 귀한 이를 섬기는 일, ③男·女와 內·外를 분별함, ④부모가 子婦를 대하는 의리, ⑤부모에게 諫하는 일, ⑥庶·賤과 妻·妾을 대하는 일, ⑦돌아가신 분을 살아계신 분 섬기듯이 하는 일, ⑧시어미와 며느리, 嫡長子の 妻(冢婦)와 衆子の 妻(介婦)의 일, ⑨宗·嫡과 貴·賤의 일, ⑩飲食·膳羞의 일로서, 부모를 섬기는 도리는 음식으로 충실하게 봉양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 다음 단계로는 ①夫婦의 禮와 妻·妾의 분별을 제시하고, ②자식을 낳음에 嫡庶의 禮를 말하며, ③敎養하는 법도에서 小·大와 男·女와 冠·昏과 宦·學의 절도를 총괄하여 말한 것이라 한다. 마지막 단계는 男·女의 분별을 말한 것으로 男女의 분별이 天地의 大義라 밝히고 있다.<sup>31)</sup>

여기서 그는 「內則」의 전체적 정신이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지아비는 지아비답고, 지어미는 지어미다우며, 長·幼에 차례가 있고 嫡·庶에 분별이 있어야 人道가 정립하고 天則이 갖추어지는 것이라 하여, 가족적 인간관계의 질서를 확립할 것을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또한 가족질서의 규범원리로서 ‘孝’는 모든 행위의 근원이 되고, ‘夫婦’는 인륜의 시작이 되는 것으로서, 聖人の 敎化가 바로 ‘孝’와 ‘夫婦’의 도리를 먼저 바로잡아 천하에 법도로 삼는 것이라 제시하며, 그 구체적 실천은 바로 먹고 마시며 男女가 만나는 자리에 삼가는 자세로 비근한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sup>32)</sup>

그는 「內則」편을 經으로 표출시키기 위한 작업으로서, 먼저 鄭玄의 註와 孔穎達의 疏, 및 朱子の 補註를 종합하고 자신의 해석을 붙여 「內則集釋」을 편찬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기』의 여러 편에서 「內則」편의 뜻을 발명할 수 있는 구절 51조를 뽑아다 「傳」(「內則傳」)을 만들어 뒤에 붙였다. 특히 그는 「內則」의 구체적 실천방법 가운데서도 喪禮와 祭禮의 중요성을 주목하여 이에 관한 언급 114조를 뽑아서 주석하여 「內則集傳」(記喪祭禮)을 이루었다.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內則」의 뜻을 부연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內則外記」를 편찬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冠禮·②婚禮·③三年間·④祭義·⑤愼始上·⑥愼始下·⑦本教上·⑧本教中·⑨本教下の 9편으로 구성하였는데, 그것은 『禮記』가운데 冠·婚·喪·祭의 四禮에 해당하는 「冠義」·「昏義」·「三年間」·「祭義」의 4편과 그 밖의 다양한 경전과 고전에서 수집하여 愼始2편과 本教3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1) 『白湖全書』(下, 1815), 권46, 「讀書記(內則)·內則集釋」.

32) 『白湖全書』(下, 1816), 권46, 「讀書記(內則)·內則集釋」, “父父·子子·夫夫·婦婦·長幼序·嫡庶辨, 而人道立矣, 天則具焉, 孝爲百行之原, 夫婦爲人倫之始, 聖人之教先正乎斯, 而可以爲法於天下, 而其爲道也, 亦慎乎飲食男女之際而已矣.”

## 6. 詩·書·三禮·春秋와 禮經의 해석

## 1) 詩·書·三禮·春秋의 해석

白湖의 經學체계는 이미 四書五經의 주자학적 경학의 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五經에서도 『周易』에 대한 독립된 해석의 시도가 없으며, 禮經은 『禮記』만이 아니라 『周禮』·『儀禮』를 포함하는 三禮를 모두 다루고 있다. 또한 그는 이러한 古經의 해석에서는 대체로 몇 편을 골라 선행하는 여러 說을 종합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으니, 경전 전체를 주석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하는 과정에서 얻은 바를 隨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 『詩經』: 『古詩經攷』에서는 古詩經의 모습을 고증하여 복원하고자 한다. 여기서 그는 頌이 가장 많이 散逸된 것으로 보고, 『周頌』〈清廟之什〉에서 清廟·維天之命·維清·烈文·天作·我將·時邁·思文·黷의 9頌을 武王이 천하를 통일하고 祖宗과 天地에 제사지낼 때 지은 것이라 하여 『周禮』에서 말한 ‘九夏’에 해당하는 것이라 본다. 따라서 그는 『周頌』〈清廟之什〉에서 ‘昊天有成命’을 〈臣工之什〉의 ‘武’ 다음으로 옮기고, 〈臣工之什〉의 ‘黷’을 〈清廟之什〉으로 옮겨 놓고 있다.<sup>33)</sup> 또한 그는 『國風』에서 〈周南〉과 〈召南〉편만을 논하고 있는데, ‘南’이라는 말의 뜻을 朱子의 『詩集傳』에서는 ‘南方의 諸侯國’이라 해석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는 ‘正樂의 명칭으로, 風의 始音이요 華夏의 正聲’이라 하여, 『國風』의 ‘二南’과 『周頌』의 ‘九夏’가 대응되는 것이라 본다.<sup>34)</sup> 나아가 〈周南〉‘關雎’詩의 작자에 대해 첫째, 畢公이라는 견해, 둘째, 朱子의 說로서 宮中の 사람이 太似가 처음 궁중에 왔을 때 그 德스러운을 칭송하여 지었다는 견해, 셋째, 詩人이 淑女를 얻어 君子의 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견해, 넷째, 文王이 스스로 淑女를 구한다는 견해, 다섯째, 申公(西漢 申培?)의 說로서 后妃가 淑女를 구하여 嬪御(後宮)의 직책에 채우고자 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여기서 그는 다섯째 申公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sup>35)</sup>

(2) 『尙書』: 『堯典』편 첫머리의 ‘欽’은 敬으로 시작함을 말하고, 『益稷』편이 ‘欽’으로 끝맺는 것은 誠으로 마치는 것이라 언명하여, 『尙書』의 〈虞書〉가 ‘欽’으로 시작하고 끝맺는 것은 聖學의 시작에서 끝까지 관통하는 정신이 ‘欽’(敬·誠)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sup>36)</sup> 또한 『大禹謨』편에서 人心·道心の 개념을 정의하면서 ‘精’을 格·致로 ‘一’을 誠·正으로 해석하여 曾子가 전한 『대학』의 道와 일치시켰다. 또한 『洪範』편에서는 ‘洪範’의 뜻을 ‘彝倫을 펴는 大法’이라 하고, ‘彝倫’은 ‘하늘이 묵묵히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이치

33) 『白湖全書』(下, 1625-26), 권41, ‘讀書記·古詩經攷’.

34) 『白湖全書』(下, 1636-37), 권41, ‘讀書記·古詩’.

35) 『白湖全書』(下, 1638-39), 권41, ‘讀書記·古詩’.

36) 『白湖全書』(下, 1641), 권41, ‘讀書記·讀尙書’, “帝典首欽, 敬以爲始也, 虞典終塞, 終之以誠也, 此聖學之終始也.”

가 四德(仁義禮智)요 그 방법이 五倫이라 해석하여, 洪範이 人倫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밝히며, 「無逸」편에서는 임금이 安逸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세가지 일로서, 첫째, 백성의 삶이 艱難함을 알아서 감히 스스로 안일하지 말 것, 둘째, 先王의 법도가 무너지기 쉬움을 알아서 조심하여 지킬 것, 셋째, 원망과 비난이 일어나기 쉬움을 알아서 스스로 德을 공경할 것을 제시하여, 君王의 治道를 집약하고 있다.

(3) 『周禮』: 그는 『周禮』가 周公이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견해를 거부하고 秦代를 거치면서 錯亂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며, 冬官이 결여되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地官 속에 敎導를 맡은 地官의 일과 水土를 맡은 冬官의 일이 섞여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하늘이 백성에게 내려준 직책으로 ‘九職’(王公·卿大夫·學士·農夫·百工·商賈·府史之吏·皂隸之徒·兵役之民)이 있고, 그 道로서 ‘十倫’(父子·君臣·夫婦·兄弟·朋友·親疎·貴賤·男女·長幼·賓主)이 있고, 그 제도로서 ‘六卿’(天官 冢宰, 地官 司徒, 春官 宗伯, 夏官 司馬, 秋官 司寇, 冬官 司空)이 있으며, 三公·三孤·六卿이 王制를 이루는 것이라 한다. 여기서 道를 온전히 실현하는 사람은 聖人이요 제도를 온전히 실현하는 사람은 王으로, 道를 닦아 제도를 행하는 것이라 하였다.<sup>37)</sup> 그것은 『周禮』의 근본정신을 道에 근거하여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라 본 것이다. 여기서 그 道를 행하는데 ‘15禮’(郊社·宗廟·朝廷·方岳·師役·田狩·耕籍·學校·賓興·冠昏·飲食·射饗·喪荒·予恤·賀慶之禮)가 있고, 그 제도를 위해서 ‘36官’(治官·敎官·禮官·政官·刑官·事官의 六官에 각각 6官씩 따름)이 있음을 제시한다. 그것은 道에 근거하여 道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로서 『周禮』의 구조를 간명하게 밝힌 것이다.

(4) 『禮記』: 그는 「曲禮」편에서 “禮로써 義를 밝히니, 禮가 있는 곳은 곧 義가 옳게 여기는 곳이요, 禮가 떠난 곳은 義가 그르게 여기는 곳이다”<sup>38)</sup>라 하여, 禮와 義의 필연적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大傳」과 「喪服小記」의 두 편은 『儀禮』의 「喪服傳」을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하고, 子夏가 기록한 것으로 「喪服傳」과 表裏를 이루는 것이라 하며, 「服間」편도 이에 가까운 것이라 파악하였다.<sup>39)</sup>

(5) 『儀禮』: 그는 『의례』의 경우 다만 「喪服傳」만을 다루고 제목도 「讀喪服傳」이라 붙이고 있다. 그가 服制문제에 관한 禮訟의 중심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儀禮』의 「喪服傳」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6) 『春秋』: 『春秋』의 경우 三傳을 비롯하여 胡傳과 諸家の 說을 자유롭게 끌어들이 다양하게 고증함으로써 138條에 걸쳐 春秋筆法의 義理를 간결하게 해석하고 있다.

37) 『白湖全書』(下, 1685), 권42, ‘讀書記·讀周禮’, “惟聖盡道, 惟王盡制, … 所以修道而行制者也.”

38) 『白湖全書』(下, 1687), 권42, ‘讀書記·讀禮記’, “禮以明義, 禮之所在, 卽義之所是, 禮之所去, 卽義之所非也.”

39) 『白湖全書』(下, 1696), 권42, ‘讀書記·讀禮記’.

## 2) 洪範經傳通義·公孤職掌圖說와 圖說(9圖)

白湖의 經學은 『讀書記』를 위주로 제시되고 있지만, 몇가지 특징적인 경학적 업적을 별도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洪範經傳通義」로서 『讀書記』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讀書記』 가운데 「讀尙書」편의 끝에 붙어 있는 현재의 『白湖全書』편차로는 그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분리시켜 다룰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公孤職掌圖說」로서 내용은 국가의 관료제도에 관한 문제로서 임금에게 올린 저술이지만, 『尙書』 「周官」편을 비롯하여 여러 經傳과 史料를 중횡으로 참고한 것으로 經學의 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圖說」(9圖)은 그 내용이 모두 經傳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1) 「洪範經傳通義」: 白湖는 26세때 「洪範經傳通義」를 저술하고 46세때 이에 다시 附記함으로써 「洪範」편을 하나의 독립된 경전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河圖」·「洛書」가 출현하니 天地의 이치를 類推할 수 있고, 『周易』·「洪範」을 지으니 聖人の 마음을 볼 수 있다. 變化는 八卦의 象에 드러나고, 經綸은 九疇의 數에 갖추어 있다.”<sup>40)</sup>고 하여, 천지의 이치(「河圖」·「洛書」)에 근원하는 聖人の 마음이 드러나는 경전의 두 축으로서, 곧 變化의 법칙을 드러내는 『周易』과 經綸의 방법을 구현하고 있는 「洪範」을 대비시키고 있다. 여기서 그는 『周易』의 道는 伏羲의 八卦와 文王의 象辭, 周公의 爻辭, 孔子의 十翼, 程子の 『易傳』, 朱子の 『周易本義』를 통해 그 원리가 남김없이 드러났지만, 「洪範」의 數는 하늘이禹에게 내려주고 箕子에게로 전하였을 뿐이요 그 큰 經과 큰 用이 천하에 밝혀지기 어려웠던 사실을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洪範」의 정신의 계발하고 해명하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경학적 과제로 삼아 연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가 「洪範」을 『周易』에 대비시켰던 만큼, 「洪範經傳通義」는 그의 경학체계에서도 핵심적 업적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는 「九疇」을 ‘하늘과 인간이 합한 것’(合天與人)을 말한다 하여, 天道와 人事가 일관하는 원리로 밝힌다. 곧 “하늘이 만물을 지음에 聖人이 하늘을 이어받아 인간으로 하늘에 합치하고,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니 道가 여기에 있다”(惟天制物, 惟聖承天, 以人合天, 以心制事, 道在是矣)고 하여, 聖人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하늘과 일치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는 道로서 九疇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聖人이 洪範九疇를 저술한 근본 취지는 ‘造化를 관장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綱領을 들어올려서 九疇의 도리를 활용하는 것’(宰化出治, 提綱挈領, 以用夫九疇之義)이라 하여, 洪範九疇를 자연의 造化와 인간사회의 정치의 모든 일을 포괄하여 관장하는 근본원리로서 파악하고 있다.

洪範九疇를 구성하는 9가지 원리는 ①五行, ②敬用五事, ③農用八政, ④協用五紀, ⑤建用皇極, ⑥乂用三德, ⑦明用稽疑, ⑧念用庶徵, ⑨嚮用五福·威用六極이며, 여기서 그는 ‘五行·五事·八政·五紀·皇極·三德·稽疑·庶徵·福極’을 천하의 일이 갖추어진 것이라 하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인 ‘敬·農·協·建·乂·明·念·嚮·威’는 聖人이 천하의 일을

40) 『白湖全書』(下, 1678), 권41, 「讀書記·洪範經傳通義」, “圖書出而天地之理可推矣, 易範作而聖人之心可見矣, 變化兆於卦象, 經綸備於疇數.”



조종하고 운용하며 참여하여 돕는 것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九疇은 天道(五行)에 順하고, 人事(五事)를 바르게 하며, 王政(八政)을 행하고, 民時(五紀)를 부여하며, 人極(皇極)을 세우고, 世變(三德)을 다스리며, 鬼神(稽疑)에 정험하고, 氣化(庶徵)를 調和하며, 休祥(五福)을 맞이하고, 災禍(六極)를 그치게 하는 大經大法이라는 것이다.<sup>41)</sup>

白湖는 九疇 가운데 ②敬用五事에서 ⑨嚮用五福·威用六極까지는 ‘用’字가 있어서 활용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①五行에는 ‘用’字를 쓰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 ‘五行’은 ‘天道の 강령이요 陰陽의 일’로서 그 氣가 하늘에 운행하는 것을 ‘四時’라 하고, 그 理가 인간에 부여된 것을 ‘五常’이라 하여, 五行에 ‘用’字를 쓰지 않는 것은 ‘天道の 自然함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그는 ‘敬·農·協·建·乂·明·念·嚮·威’의 방법을 중시하여 일일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곧 ②敬用五事の ‘敬’은 ‘天命을 두려워하고 人事를 닦는 것’(畏天命而修人事)이라 하고, ‘자신의 몸을 주재하고 마음을 보존하여(主身存心) 하늘의 법칙(天則)을 따르는 것’이요, ‘자신을 닦고 사람을 편안하게 하여(修己安人) 德에 힘쓰고 하늘에 짝하여 천하의 표준을 세우고 만사의 조화를 관장하는 것’이라 한다. 그것은 敬이天命을 따라 人事를 수행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③農用八政의 ‘農’은 ‘마음에 근본하여 王政을 행하는 것’이라 하며, 이 마음은 『주역』에서 말하는 ‘天地의 德’이요, 孟子가 말하는 ‘차마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라 한다. 곧 ‘農’을 仁의 마음으로 仁政을 백성에게 베푸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④協用五紀의 ‘協’은 습하는 것이요 順하는 것으로, 曆法을 정리하여 節候(時)를 밝히는 것이 王政의 急務와 生民의 大紀임을 제시한다. ⑤建用皇極의 ‘建’은 ‘세워서 바꾸지 않는 것’으로, ‘陰陽에 근본하고 사물의 법칙에 따르며, 백성을 다스리고 天文을 바로잡으며, 中에 자리잡아 群衆을 관장하고 神明에 묻고 하늘의 警戒를 흠송하고 討伐을 엄숙히 하는 것’이라 한다. ⑥乂用三德의 ‘乂’는 ‘결단하여 다스리는 것’(裁化制治)을 말하며, 권력을 잡고 위엄과 화복을 지배하여 시기의 변화에 소통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 ⑦明用稽疑의 ‘明’은 聖人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齊戒하여 물러나 고요한 속에 몸을 간직하는 것이라 한다. ⑧念用庶徵의 ‘念’은 ‘자기를 반성하여 마음을 경계하는 것’으로, 하늘의 위엄을 엄숙히 하며 그 일을 바르게 하여 재앙을 福으로 돌리고 혼란을 다스림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라 한다. ⑨嚮用五福의 ‘嚮’은 向慕하여 이루는 것이고, 威用六極의 ‘威’는 두려워하고 꺼리어 피하는 것이라 한다.<sup>42)</sup> 여기서 그는 人事의 문제가 하늘(天命·天道·天則)에 근본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또한 하늘의 위엄(天威·天戒)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을 바르고 깨끗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임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특히 洪範九疇의 數가 지닌 象數的 의미를 주목하여 1에서 9까지 합한 數인 45가 洛書에 상응할 뿐 아니라, 九疇의 조목을 합한 수인 50이 易의 大衍之數에 해당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또한 洛書의 數理와 연결하여 연역하면 陽數에서 三公·九卿·27大夫·81元士의 王制가 도출되고, 陰數에서 四象·八卦·16象·64卦가 나오는 것이라 한다.<sup>43)</sup> 이처

41) 『白湖全書』(下, 1662), 권41, ‘讀書記·洪範經傳通義’.

42) 『白湖全書』(下, 1662-70), 권41, ‘讀書記·洪範經傳通義’.

럼 象數에 대한 관심은 그가 『洪範』편이 지닌 근본원리로서 원천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요, 그만큼 『洪範經傳通義』는 그의 경학체계에서 결여되고 있는 易學을 대치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公孤職掌圖說」: 白湖가 63세때(1679, 숙종5년) 임금에게 올린 것으로, 周代의 국가 제도로서三公·三孤의 직무를 통해 王政의 제도와 원리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는 成王이 周公으로 부터 정권을 돌려받은 다음 신하들에게 六典을 반포하고 훈계하였던 『尙書』의 「周官」편을 첫머리에 제시하여,三公·三孤의 職制를 王政의 한 모범적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곧 그는 전문의 직무가 없이 道를 논하고 教化를 펴서 天子를 좌우에서 보필하는三公(太師·太傅·太保)과 이를 보좌하는 三孤(少師·少傅·少保)가 나누어 관장하는 직무를 『大戴禮記』의 「保傅」편과 賈誼의 遺編, 및 『逸周書』 등을 참고하여 제시하며, 上古의 聖王이 보인 모범적 법도를 보여준다. 또한 그가 帝王의 治道를 구체적 과제로 밝히면서 『周禮』의 六官제도와 그 직무를 수용하여 해명하고 있는 사실은 「周官」편의三公·三孤제도와 『周禮』의 六官제도를 통합하여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그는 六卿이 위로三公·三孤를 겸하던 옛 법도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六卿이三公의 職을 겸하는 제도를 회복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는 太師의 직무로 帝王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治道를 밝히기 위해 옛 법도를 배우고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法言을 제시하며, 太傅의 직무로 先王들이 크게 경계하였던 일로 후세의 귀감이 되는 사실들을 들고 있다. 사실상 그는三公·三孤의 제도와 직무를 다양한 經傳과 史書에 근거하여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유교적 정치제도의 原型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관심으로 일관하였다. 이처럼 그는 이 王政의 이상적 제도와 원리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經學과 史學의 영역을 종합하는 經世論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조선후기 실학파에서 추구하는 제도개혁론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圖說」(9圖): 『白湖全書』의 권35에 수록된 「圖說」 9圖는 ①帝舜人心道心之圖(3圖), ②阜陶紘秩之圖, ③禹則洛書作範圖, ④箕子序疇之圖, ⑤禹敍彝倫之圖, ⑥孔子達道達德九經之圖, ⑦大學之圖, ⑧中庸之圖, ⑨太公丹書敬義之圖의 9圖로 이루어져 있으나, 전체의 통합된 명칭이 없어서 마치 여러 圖說을 임의로 모아 둔 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 9圖가 모두 經傳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①帝舜人心道心之圖(3圖)에서 ⑤禹敍彝倫之圖까지는 『尙書』에 근거한 것이고, ⑥孔子達道達德九經之圖는 『중용』(20章)에 근거한 것이며, ⑦大學之圖와 ⑧中庸之圖는 각각 『대학』과 『중용』에 속한 것이고, ⑨太公丹書敬義之圖는 『大戴禮記』(武王踐阼)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經學圖說의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 또한 ①帝舜人心道心之圖(3圖)의 끝에 '임금의 열람하심에 대비한다'(備睿覽) 하였고, ⑨太公丹書敬義之圖의 뒤에 「臣按」이라 한 것을 보면 임금에게 올렸거나 올리려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9圖의 내용은 君德과 治道의 기본원리를 제시한 것이니, 聖學圖의 성격이 분명하게

43) 『白湖全書』(下, 1675-77), 권41, 「讀書記·洪範經傳通義」.

드러나 있다.<sup>44)</sup>

그의 『圖說』(9圖)에서 『尙書』에 근거한 ①圖에서 ⑤圖까지를 보면, ①帝舜人心道心之圖(3圖)는 堯·舜·禹로 전하는 聖王의 心法을 밝힌 것이고, ②皐陶絃秩之圖는 皐陶가 禹에게 제시한 治道の 計策(謨)이며, ③禹則洛書作範圖와 ④箕子序疇之圖는 洛書의 배열구조에 洪範九疇를 배당시킨 것이고, ⑤禹敘彝倫之圖는 하늘이 禹에게 洪範九疇를 내려주어 彝倫을 펴게 했다는 것이요, 彝倫은 五常·五倫으로서 伏羲·黃帝·堯·舜·禹·湯·文·武의 道가 바로 彝倫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9圖가운데 5圖에서 古聖王의 心法과 治道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③圖·④圖의 2圖에서 洛書와 洪範을 결합시킨 圖象을 제시하여, 洪範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①圖-⑤圖에서 『尙書』를 통해 古聖王의 心法과 治道를 제시하고 나서, ⑥孔子達道達德九經之圖에서 『중용』으로 孔子의 治道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난 다음에, ⑦大學之圖와 ⑧中庸之圖에서는 『대학』·『중용』의 經文을 하나의 짝이 되게 하였다. 끝으로 ⑨太公丹書敬義之圖는 古聖賢의 가장 절실한 心法으로서 敬·義의 문제를 『大戴禮記』의 『武王踐阼』편에서 끌어들여 9圖를 끝맺고 있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9圖는 人心道心の 心法으로 시작하고 敬義의 心法으로 끝맺고 있으니, 그의 聖學개념이 수양론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끝으로 『大戴禮記』를 끌어들이고 있는 사실은 五經·九經·13經 등 기존의 經學들을 깨뜨리고 經學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의미를 엿볼 수 있게 한다.

## 7. 白湖 經學의 영향과 意義

星湖 李瀾의 門人으로서 星湖학파의 信西派를 이끌어갔던 鹿庵 權哲身은 ‘退溪→白湖→星湖’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제시하고 있다.<sup>45)</sup> 白湖가 明德을 理氣개념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孝·弟·慈’로 해석하고, 畏天·事天의 事天學을 역설하고 있는 사실은 星湖학파의 후학인 茶山 丁若鏞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白湖는 人心·道心の 양상을 天理·人欲에 상응시켜 설명하면서, 성품을 부여받아 上帝가 命하여준 속마음(衷)을 얻은 것은 天理의 自然함을 지닌 것이라 하고, 태어남에 기질의 변화에 국한된 것은 人欲이 뒤섞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한다. 여기서 그는 성품과 기질에 따른 天理와 人欲의 두가지가 일상생활에 병행함으로써, 마음 속에서 번갈아 勝負를 다투는 것이라 하

44) 이런 의미에서 白湖의 『圖說』(9圖)에 이름을 붙인다면 아마 『聖學九圖』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점에서 退溪의 『聖學十圖』와 대비시켜 해명해볼 만 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의 經學저술과 圖說에서 ‘洪範九疇’에 대한 높은 관심은 비슷한 시기의 嶺南유학자인 李徽逸·李玄逸에 의한 『洪範衍義』의 저술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5) 『與猶堂全書』, 제1집, 권15, 35, ‘鹿庵權哲身墓地銘’, “公少時慕夏軒, 嘗曰, 退溪之後, 夏軒之學, 有本有末, 夏軒之後, 星湖之學, 繼往開來.”

여, 46) 인간의 마음을 天理와 人欲이 갈등하는 현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茶山이 마음을 人心과 道心이 갈등하는 戰場으로 보는 人心道心內自訟說과 매우 근접하는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白湖→星湖→鹿庵→茶山’으로 이어지는 학풍의 연속성을 설정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星湖學派의 실학 속에서 白湖의 사상적 영향을 확고한 증거로 찾아내기는 아직 쉬운 일이 아니므로, 白湖의 영향이 茶山에 미치고 있는 사실을 성급하게 단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남아 있다.

사실상 16세기 성리학의 巨匠들이 체계적인 경전주석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白湖의 독자적 경학저술은 17세기 중반 한국유학이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19세기 초반에 방대하고 독자적인 經學체계를 구축한 茶山과 17세기 중반에 새로운 경학체계를 구축한 白湖는 경학적 입장의 직접적 연관성보다는 朝鮮後期儒學史에서 지니는 經學의 獨自의 창의성에서 대표적 두 봉우리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물론 白湖가 朱子의 경전해석을 존중하여 수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점차 주자의 경전해석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인 경학체계를 모색함으로써, 자신의 독자적 經學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經學은 전반적으로 보면 茶山을 정점으로 하는 脫朱子學의 實學的 經學으로 나아가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白湖經學은 茶山經學의 先驅가 되고 있는 것이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6) 『白湖全書』(中, 1038), 권25, ‘四端七情人心道心說’, “蓋聞天下之道二端而已, 稟性而得乎帝命之衷, 則固有天理之自然矣, 有生而局於氣質之變, 則亦不能無人欲之雜矣, 日用之際, 二者并行, 迭爲勝負於方寸之間.”